



SmartThings

Connected Experience

# Connected Experience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기 간 초연결

## CHECK POINT

- ✓ 손대지 않아도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Bixby 음성 컨트롤
- ✓ 휴대전화가 가전제품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리모컨 기능을 제공하는 Quick Remote
- ✓ 사용자의 실제 집을 토대로 공간별 제품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D 맵뷰
- ✓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시 절약 모드
- ✓ 사용자와 가족,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까지 생각하는 패밀리케어 & 펫케어



## ‘시 홈’과 ‘빅스비(Bixby)’로 집안 모든 기기를 한 번에

삼성전자는 기기 간 연결 경험(Multi Device Experience, MDE)을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진화한 시 기능과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시 홈’, 음성 인식 빅스비(Bixby)를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어, 설치 공간과 제어 방식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24년형 비스포크 제품에 새로 도입된 ‘빠른 리모컨(Quick Remote)’ 기능은 휴대전화가 스탠드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에 근접하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리모컨 팝업이 뜨고, 아이콘을 눌러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 안의 리모컨으로 이동하여 모드 선택, 온도 설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6월부터는 제습기, 벽걸이 시스템 에어컨 일부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및 가전에 탑재된 빅스비로 손대지 않아도 음성으로 연결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예로 냉장고나 세탁기에 적용된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활용해 ‘하이 빅스비, 세탁기 냉장고 문 열어줘’ 하면 제품 문을 손쉽게 열 수 있고 ‘하이 빅스비, 에어컨 무풍모드로 틀어줘’라고 얘기해서 제품을 원하는 모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다.

## ‘패밀리 케어’ 서비스로 안전한 우리 가족

스마트싱스에서 시 절약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을 제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추가 절감할 수 있고, 외출 시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집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기기가 꺼지도록 외출모드를 설정하거나 에어컨을 켜면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이 닫히도록 설정하는 등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최대 60%는 WD25DB\*\*\*\* 모델 기준, 스마트싱스 시 절약모드는 자사 시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마지막으로 로봇청소기, 냉장고, 인덕션 등 제품은 사용자와 그 가족을 케어해준다. ‘패밀리 케어’ 서비스는 부모님의 냉장고, 정수기, 인덕션 사용 여부를 가족의 스마트싱스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비스포크 시 인덕션은 안심 알림 기능을 적용해, 인덕션이 켜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외출한 것이 인식되면 알림을 전송하고, 팝업을 통해 원격으로 제품의 전원을 끌 수 있다. 제품을 켜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외출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능이다. 또한 안전 자동 알림 기능을 추가해 제품을 켜두고 조작하지 않으면 설정한 시간에 따라 알림이 발생한다.

## CEO INTERVIEW

### 한 중 회 삼성전자(주) DX부문장(부회장)



인공지능(AI)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가전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2024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기능을 발 빠르게 가전제품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12개 제품 모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가전과 스크린을 융합한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s Everywhere)’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모든 가전을 하나로 연결해 AI가 에너지 사용량까지 똑똑하게 절감해주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진정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세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능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일상은 물론 환경까지 바꾸는 기업이 되었겠습니다.